

GANGJIN 

# *Web Contents*



# 목차

목차	2
창간호 편집후기	3



우리는 詩(시)를 살로 색이고 피로 쓰듯 쓰야 한다. 우리의 詩(시)는 우리 살과 피의 매침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詩(시)는 지나는 거름에 슬적 얽어치워지기를 바라지 못하고 우리의 詩(시)는 열 번 스무 번 되씹어 읽고 외여지기를 바랄 뿐, 가슴에 늦김이 있을 때 절로 읊어나오고 읊으면 늦김이 이어나야만한다. 한 말로 우리의 詩(시)는 외여지기를 求(구)한다. 이것이 오죽 하나 우리의 傲慢(오만)한 宣言(선언)이다. 사람은 生活(생활)이 다르면 감정이 갖지 안코 教養(교양)이 갖지 안으면, 感受(감수)의 限界(한계)가 따라 다르다. 우리의 詩(시)를 알고 늦겨줄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잇슴을 미더 주저하지 안는 우리는 우리의 조선말로 쓰인 詩(시)가 조선사람 전부를 讀者(독자)로 삼지 못한다고 어리석게 불평을 말하려 하지도 안는다.

이것이 우리의 自限界(자한계)를 아는 謙遜(겸손)이다.

한 민족이 言語(언어)가 발달의 어느 정도에 이르면 口語(구어)로서의 존재에 만족하지 안이하고 文學(문학)의 형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文學(문학)의 成立(성립)은 그 민족의 言語(언어)를 完成(완성)시키는 길이다. 우리는 조금도 바시대지 안이하고 늘진한 거름을 두벽거러 나가려 한다. 虛勢(허세)를 펴서 우리의 存在(존재)를 인정바드려하지 안니하고 儼然(엄연)한 存在(존재)로써 우리의 存在(존재)를 戰取(전취)하려 한다.

임의 一家(일가)의 品格(품격)을 이루어 가지고도 또 이루어짐으로 作品(작품)의 發表(발표)를 꺼리는 詩人(시인)이 어덴지 여러분이 잇슴듯십다. 우리의 同人(동인) 가운데도 자기의 詩(시)를 처음 印刷(인쇄)에 부치는 二三人(2~3인)이 잇다. 우리는 모든 謙虛(겸허)를 準備(준비)하야 새로운 同人(동인)들을 마지하려한다. 第1號(제1호)는 編輯(편집)에 急(급)한 탓으로 研究紹介(연구소개)가 업시되였다. 압흐로는 詩論(시론), 時調(시조), 外國詩人(외국시인)의 紹介(소개) 等(등)에도 잇는 힘을 다하려 한다. 더욱이 여러 가지 어긋짐으로 樹州(수주)의 詩(시)를 못시름은 遺憾(유감)이나 次號(차호)를 기약한다.

本誌(본지)는 一, 三, 五, 七, 九, 十一月의 隔月刊行(격월간행)으로 할 作定(작성)이다. 여러 가지 形便(형편)도 잇거니와 詩(시)의 雜誌(잡지)로는 당연한 일일듯십다. 이번 號(호)는 엿저는수업시 三月(3월)에 나가게 되였스나 第二號(제2호)는 四月初(4월초)에 (原稿締切 三月二十五日<원고체절 3월25일>) 第三號는 五月初에(原稿締切 四月三十日<원고체절 4월30일>) 내여서 마춰나갈 예정이다....

編輯(편집)에 주문이 잇스시는이는 거침업시... ..(龍兒)

GANGJIN

***Web Contents***

